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놀라운 소식 성경: 마가복음 16장 1-8절

Tag:

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4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8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어져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막16:1-8)

분량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 많은 양이 아니다. 반면 예수님의 수난에 관한 이야기는 그 분량이 많다. 4복음서 중 마가복음은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한다. 사실 오늘 읽은 1-8절까지의 내용만 기록한 사본들도 있을 정도이다. (아마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여서 베드로의 고백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에 관해서 매우 부끄러운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이 적지 않나 추측된다.)

그러나 후대의 많은 사본에는 9-20절까지의 내용이 있지만, 최초의 마가복음에는 1-8절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다른 마가복음 필사자들에게 의해서 9절 이후가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9절에 보면

9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16:9)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의 성경 말씀들을 역사적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

목요일부터 시작해 보자. 예수님께서 수난당하신 목요일은 당시에 유월절 첫째날이다. 이 날은 유월절(무교절) 음식을 먹는 날이다. 이 날 예수님은 유월절 때 사용하던 음식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성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가롯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그리고 겻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그 밤에 그곳에서 병사들에게 잡히신다. 그리고 밤새도록 산헤드린과 빌라도법정, 그리고 헤롯왕궁 그리고 다시 이른 아침 무렵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게 되셨다. 그리고 그날 아침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날은 유월절 둘째날이다.(금요일) 그리고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다. 그래서 다음날 있는 안식일(토요일)은 다른 안식일과는 달리 유월절 명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로 큰 명절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빨리 예수님을 끌어 내리기 원했다.(보통 십자가형은 일주일 정도 효시함) 안식일에 죽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의 죄

수들은 다리를 꺾어 억지로 죽임을 당하게 하고,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하는데 이미 죽어있어서 창으로 배를 찔러 죽음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약 오후3시경.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냈다.(금요일에 돌아가심;첫째날) 너무 급하게 장사를 지내는 바람에 마땅히 시신에 향유도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여인들은 급히 안식일이 되기 전에 향유를 예비한다.(그러나 이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또는 한 여인-마가) 유월절 이틀 전에(옛세전(요한)이나 이틀 전 화요일(마가)) 장사를 예비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지 않았던가?-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추측함.)

토요일은 안식일이니 모두 안식하였다. (둘째날)

안식후 첫날(셋째날) 이른 아침에(셋째날이 시작된지 12시간 이상이 지났음;춘분(파스칼보름)이후 첫 주일이 부활절) 여인들은 급히 예수님의 유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안나, 살로메)

(돌을 옮기는 것을 걱정함)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고 기록함.)

-염려와는 달리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은 비었으며 두루마리는 한쪽에 개켜있었음.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무덤 안 우편에 앉아 있어서 놀람.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며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함.

-그러나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함.(이렇게 마가 복음은 끝을 맺음)

(마태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부분을 전한다. 지진과 천둥이 쳐서 지키던 자들까지 모두 무서워 꿈쩍을 못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러 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한다.-아마도 유대에는 기적적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개입으로 여기는 전통이 있어서 상세히 기록,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도 혼비백산. 다른 복음서

는 이방인을 의식해서 생략할 가능성이 큼- 여자들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명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났다.)

-세 여자가 가서(혹은 막달라 마리아만;마가, 요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고함.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진실로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감. 아직까지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음.

-어수선한 소식을 듣고 제자들 중 두명이 고향으로 돌아감 (글로바 외1명, 누가)

-베드로는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유해를 사람들이 옮겨갔다고 짐작함. 이쯤에서 예수님은 매우 답답하셨을 것임.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을 고지했기 때문.

(혹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돌아간 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을까하여 서성거리며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 하나 제자들은 믿지 아니함.)

-고향으로 향하는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남(글로바 외1명)

-이들이 해질녘 즈음에 식사를 하는 도중 예수신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제자들과 다시 만남.

-제자들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함.

-글로바 외1명의 제자가 되돌아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 하나 (제자들이 믿지 못함;마가)

-이런 말을 할 때에(또는 저녁식사 중에;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문이 잠겼는데도) 평안하느냐고 안부를 물으심.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데, 예수님은 먹을 것을 먹으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심. 그리고 말씀하심.

-그러나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아니하여 믿지 아니함.

-8일 후 도마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심.

-그후로도 40여일을 갈릴리까지 여행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심.
(요한복음 21장 말씀도 이때쯤)

-마지막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심.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여명의 제자들이 모여 힘써 기도하는 중에 승천 이후 약 10일 지나서 성령이 오심.

-4복음서는 부활 즉시 기록되지 아니함.

-왜냐면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지 않음. (초기 종말론적 상황;인류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혼돈함.)

-그러나 스테반 순교 이후,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함.

-바울의 등장으로 왕성한 이방전도가 시작됨.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횡포와 로마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고 급기야 베드로까지 순교를 당함.(64년)

-아마도 마가복음이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큼.

-나머지 복음서는 그 이후 기록되었을 것임.

-AD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본격적으로 교회들이 성경을 기록했을 것임.

-그러나 모두 각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성경을 기록함.

-그래서 부활사건에 대한 증언들이 약간씩 달라짐. 이미 40여년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의 수준과(제자들은 대부분 열혈당원이었음), 유대교의 핍박, 로마의 핍박 등을 고려할 때 제자들이 거짓말로 부활을 전했거나 목숨을 걸고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부활을 전했을 리가 없다.

-그러나 당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과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 말씀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쉽게 기독교인이 되었다. 즉 예수님의 존재나 사건이나 기적이거나, 축귀나, 그 가르침의 권세등은 예수님이 충분히 부활하실 수 있을만한 분임을 역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제자들이 말하는 부활을 믿었다. 그들은 신화를 믿거나 카더라 통신을 믿은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기적을 믿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억을 더듬어서 신약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아무도 서로 만나서 어떻게 기록하자고 모의하지 않았다. (성경의 수 많은 필사본이 그것을 증명한다.)

-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출발하였다. 유대교의 기록(특히 성경과 탈무드와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 유대연대기;유대인 치고 기독교에 대해서 객관적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유대 연대기 18 번째 책 3장 3절에 의하면 (증언 구절로 부르기로 한다)

‘이즈음, 놀라운 일 들을 행하며 진리를 기쁨으로 받는 이들의 선생이었던 관계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현자였던 예수가 있었다. 그는 많은 유태인과 이방인들을 끌어 모았다. 그는 구세주였다.

우리 중에 주요 인물들의 요청에 따라서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처형 했을 때, 그를 사랑 했던 이들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미리 부활과 수 만 가지 그에 관한 이적들을

예언 한 대로, 그는 제 3일에 살아나서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크리스천이라는 집단은 오늘날 까지 존속되고 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태어나지 못했으며, 세상은 이렇게 진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의 형성사2 성경: 시편 119편 105절

Tag: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